

지역의 문화 예술을 '꽃' 피우는 사회적기업 WAAT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 호 성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가진 행동방식과 사고방식을 포함한 생활양식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내포하고 표출하는 '문화예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와트(WAAT) 대표 현지훈의 답변에서 문화와 예술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와 이에 대한 철학이 드러난다.

그는 미디어매체의 발전과 급격한 생활양식의 변화 등 시대의 발전으로 문화수준은 높아졌으나 오히려 문화에 대한 옳고 그름의 분별이 사라진 시대를 청소년, 청년이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났고, 동시에 문화예술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지역 내 문화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명감으로 현재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사진 1 아산 신정호 별빛 음악회 (사진제공: WAAT)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와트는 충남 아산시 염치읍에 위치하며 300평규모의 부지에 공간의 1층은 창고, 2층은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다. 직원 4명을 포함하여 17명 정도의 구성원이 활동하는 협동조합이다. 중점을 두는 사업은 문화예술기획으로 지역적 특징을 살린 문화콘텐츠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외에도 댄스공연과 영상촬영, 그리고 디자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해오고 있다. 지역문화행사를 기획한 사례는 2016년 이후부터 아산시와 진행한 물총페스티벌(2022 적Show), 현충사 달빛야행, 독립기념관 따숨마켓, Merry Christmas Party 공연 등으로 이처럼 지역민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왔다.

기업은 주로 청소년/청년 문화예술 전공자들과 소통하며 그들과 지역의 이슈들을 연계 및 지원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청소년/청년단체들에게 영상촬영 기회를 제공하여 좀 더 넓은 범위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댄스공연의 경우 WAAT 자체 소속 댄스팀과 지역 내의 다른 댄스팀을 연계하여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가들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학교나 각종 기관 및 단체 등의 행사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을 지원하고 여러 문화예술팀들이 활동무대를 개척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 2 댄스공연팀(사진제공:WAAT)

“기획에서 중요한 요소는 창의적 메시지와 단체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기획을 할 때, 그는 항상 새로운 것과 그 새로운 것이 이 기획 안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또한 사업체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기획의도가 와트의 가치관과 부합하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한다. 수익성만을 따져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에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와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결국 지역 내 기업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답변한 그에게서 운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비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신념과 연관된 계기에 대하여 현지훈 대표는 협동조합 설립 초기에 진행했던 지역 할로윈 축제에 대한 기획경험의 일화를 언급했다.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한 이후, 대표는 해당 축제는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흐리게 하는 지역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유사한 행사에 대한 기관 및 기업들의 제안을 거듭 사양하였으나, 행사 목적에 따른 구성 등에 대한 협동조합 와트의 진정성과 확고한 신념은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다른 콘텐츠 기획에 대한 의뢰 요청으로 이어졌다. 결국 와트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지역의 작은 업체로서는 얻기 어려운 좋은 기회들을 성취할 수 있었고 진정한 의미의 문화예술 전문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발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을 시작한 초기는 코로나19로 인해, 현대대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서, 영상분야를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시켰다. 기존에는 콘텐츠를 사업적 측면에서 제작하기 보다는 지역 재능기부 및 지역 청소년/청년 단체와의 교류를 위한 활동으로만 진행해 왔던 분야이었다. 영상사업 부분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후 제작했던 영상들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영상제작을 의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MV 감독들과 social network를 통해 작업 제안을 받기도 했다.

현지훈 대표는 지역엔터테인먼트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탄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알게 되어 든든하고 뿌듯하다고 밝히면서, 문화예술 전문엔터테인먼트로 성장을 이뤄서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만 문화예술이 활발히 존재하는 게 아닌, 지역에서도 자생적으로 고품격의 문화예술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다부지게 포부를 밝혔다.



사진 3 사회적 기업 WAAT가 기획한 아산 지역축제 현충사 달빛야행(사진제공:WAAT)

아산의 20번째 사회적기업으로 아산시에서는 유일, 충남 내 2번째 문화예술기획 전문 사회적기업인 와트가 앞으로도 활발한 세대 간 문화적 교류 활동 및 다채로운 사업을 통해 건전한 지역문화예술을 정착시키고, 이와 함께 올바른 도덕관념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지역민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